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로마서 6:23,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살같이 빠른 세월 속에서, 삶과 죽음의 세상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과 그가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이다. 오늘 본문은 이런 진리를 전하는 성경의 요절들 중의 하나이다.

죄의 값은 사망

본문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한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첫 사람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 2:16-17)고 말씀하셨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그들은 죄를 지었다.

또 그들은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네가] 필경은 흠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흠이니 흠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창 3:19)고 말씀하셨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자손들의 계보를 열거하면서 그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여덟 번이나 반복해서 증거하였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활의 규칙으로 십계명을 주셨지만, 사람은 그 법을 어겼다. 이 세상에는 우상숭배와 미움과 음란, 거짓과 탐욕이 가득해졌다. 또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이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 존재가 되었다. 심지어 어린아이도 죽는다. 또 이 세상

은 죽음을 재촉하는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많은 세상이 되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다. 때때로 전염병들이 돌기도 한다. 가축들에게도 전염병이 돈다. 조류독감(AI)으로 인해 2천만 마리가 넘는 닭과 오리 등이 살처분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내리신 큰 재앙이다. 또 이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도 많다. 또 사회의 각종 비리와 불법과 혼란도 이 세상의 죄악 된 면모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매우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영생

본문은 하나님의 은사 곧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가득하고 죽음의 골짜기 같은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친히 말씀하셨다(요 3:16).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자이시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신 자이시며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자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한 로마서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진리를 증거하였다. 이것을 이신칭의(以信稱義)의 진리라고 말한다. 사람은 자기의 부족한 행위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짓음을 받을 수 없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없다.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믿음으로써 죄짓음과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救贖)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롬 3:23-24).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했다(엡 2:8-9).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사람은 자신의 부족하고 불완전한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얻는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나 성화는 필수적 과정

그러나 성화(聖化) 곧 거룩한 삶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정상적인 삶이며 필수적인 과정이다. 오늘 본문 직전에 있는 22절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한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죄에게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죄에게서 해방된 자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거룩한 삶은 예수님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 곧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정상적인 과정이며 필수적인 과정이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복음이 “우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엡 4:22-24). 구원은 죄악된 옛 사람을 벗어나고 의와 참된 거룩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구원은 삶의 변화이다.

성화의 목표는 도덕적 완전이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했다(벧후 3:14).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이 우리의 생활 목표이다.

사도 요한도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음이라. 이렇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했다(요일 3:9-10). 구원받은 자는 죄를 버려야 한다.

말씀을 맺는다. 우리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얻었는가? 구원을 확신하는가? 또 우리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는 새 해를 맞았다. 많은 사람들은 올해가 매우 불확실성의 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경제가 크게 어려울 것이다. 이미 조선업이 무너졌고 대기업들이 흔들리고 있다. 각 가정의 많은 빛은 사회의 시한폭탄이 되었다. 또 안보가 매우 불안할 것이라고 보인다. 북한은 핵무기의 완성 단계에 와 있고 남한은 북한 핵에 포로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한미동맹은 평탄해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는 전쟁의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자들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주권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영생을 확신하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